

[GROUP BOOKiT2기] 지니네 가족 독서 그룹



지갑을 찾아준 꼬마악어가
대단하다고 한다.

- ✓ 날짜 : 2024년 9월 1일
- ✓ 책 : 꼬마 악어의 지갑
- ✓ 누구랑? : 김시진, 조아현
- ✓ 어떻게 : LAN선 독서 (페이스타임)

"꼬마 악어의 지갑" 을 읽었다.

아빠(시진) : 시진아 네가 만약 지갑을 주웠다면 어떻게 할거야?

시진 : 내게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요.

엄마(시진) : 주인이 근처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?

시진 :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해요.

유치원과 학교에서 그리고 평소에 많이 들어왔던 내용일 것이다. 아직은 욕심이 많지 않은 시진이.

아빠(시진) : 시진아 너는 용돈이 있니?

시진 : 있어요. 내 지갑에 있어요.

아빠(시진) : 얼마나 있어?

시진 : 한... 3만원?

엄마(시진) : 시진이는 그 돈을 어떻게 쓸거야?

시진 : 음... 아직 잘 모르겠어요.

아빠(시진) : 꼬마 악어가 지갑을 선물 받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한 번 다시 볼까?

책을 다시 한 번 읽었다. 아직 돈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모르기도 하지만, 그 돈으로 무엇을 사려고 욕심 내어 본 적이 없는 아이들. 그 돈으로 장난감을 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, 그 것 외에 다른 것은 아직은 잘 모른다. 책을 한번 다 읽고, 활동지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.

엄마(아현) : 아현아 너가 가진 그 용돈으로 어떻게 나누어 쓸 수 있을까?

아현 : 스티커 살거예요. 시진이 오빠 줄거예요.

아빠(아현) : 아현아 아빠 맛있는거 사주면 안돼?

아현 : 음.. 아빠 엄마는 커피 드세요.

아빠(아현) : 그런데, 네가 사고 싶은 스티커는 얼마야?

아현 : 음.. 잘 모르겠어요.

엄마(아현) : 스티커 사고도 많이 남는데?

시진 : 음.. 미숫가루도 먹고 싶은데..

아현 : 오빠 스티커도 받고 미숫가루도 먹어!

아빠(시진) : 우리 꼬마 악어 처럼 현명하게 어떻게 쓸지 생각 해보자. 아저씨는 아현이가 미숫가루를 사고, 시진이오빠가 스티커를 좋아하는지 물어볼까?

시진 : 나 안좋아해!

아현 : 흥..

아빠(아현) : 아현아. 용돈을 쓸때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보자. 시진이 오빠는 스티커 안좋아한데.

엄마(시진) : 꼬마 악어가 잘 나누어 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해보자!



2024. 09. 01